

Radical Disciple I.

군중을 향한 메시지와 제자를 향한 메시지는 다르다.

1.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진리의 세대들

[마태복음 4:19-22]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깎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 **군중** - 위로, 격려, 긍휼이 여기심.

* **제자** -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기 그물을 버리는 것(제자도).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자기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우선순위의 정렬이 있는 사람들.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기 위한 정렬. 제자들은 무리와 군중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2.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레디컬'이다.

우리가 만드는 여론이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거짓사실을 만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진리(말씀)를 거스르는 죄성의 인간들의 시초가 바로 에덴의 아담이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다. 갈등만 있을 뿐이다. 각자의 소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면 세상의 기준에서 더 힘이 있는 자들이 여론을 모을 수 있다. 진리를 대적하는 여론이 이 세상의 흐름이다. 경제, 정치, 교육, 문화, 가정 등 모든 곳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여론이 흐름을 만든다.

예수님의 대안은 제자들이다. 세상흐름을 역행할 진리의 제자들을 3년간 준비하셨다.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축복하고 기대하셨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이다. 제자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자들이다.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3. 레디컬 제자들 :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이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

1) 자기를 부인하는 일 (회개) - 십자가 신앙

예수님의 죽음안에 있는 자들. 회개의 삶을 말한다. 회개는 천국을 오게하는 문이다

[마태복음 3: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37-38]

37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져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38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천국 메시지를 듣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어찌할꼬'이다. 이 때 베드로가 회개를 말한다. 회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다. 다른 삶을 살게하는 통로가 회개이다. 회개는 바로 돌이킴이다.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여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을 말한다. 완전히 다른 삶이다.

2)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는 담대한 믿음

예수님은 결국 승리의 사역을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바로 그 순간 담대함, 확신이 생겨난다. 하늘을 움직이는 자들이 제자들이다. 확신을 가지라.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여정 안에 나타난 풍량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용기, 담대함은 컨피던스이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확신이다.

* 믿음 - 2C (용기 COURAGE, 담대함 CONFIDENCE)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후 주의 영이 함께 했다고 증거한다. 그리고 그 당시 골리앗을 통해 만들어진 두려움의 공기를 전환시킨다. 승기를 만들어 낸다. 이 승기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깨워낸다. 그리고 승리를 얻는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세상을 역행하는 것이 결국 진짜 승리를 얻게 한다.

3) 오벧에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공기를 전환했다.

[사무엘하 6:11]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 때에 주님께서 오벧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수와 양에 있지 않다. 세상의 흐름은 언제나 수와 양에 집중한다. 다윗이 준비한 엄청난 규모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은 없었다. 말씀대로 하지않는 예배, 내 마음대로 하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은 없다. 다윗은 오벧에돔의 예배에 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다시 말씀으로 재정렬 되었다.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아갔다. 그 때 예루살렘의 문은 열린다.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오벧에돔의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곳에 임재가 있고 복이 있다. 그 진리위에 있는 예배가 복의 흐름을 바꾼다.